

세계인 감동시킨 나눔·배려 도시품격 높이는 원동력으로



(5) '광주정신' 도약의 발판으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 연대와 나눔, 참여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남도의 정이 어우러진 '광주정신'을 도시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 참여형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광주 U대회 성공 개최의 힘을 나후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U대회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진 나눔과 배려 등 광주 정신에 대한 높은 평가들이 폐회 이후에도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광주 U대회에 참가했던 국내외 선수단이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광주시민의 따뜻한 남도의 정을 알리면서 그동안 온라인 등에 난무했던 호남 비하 게시물 등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광주 U대회 개최의 사회적 파급 효과'조사에서도 개최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1주일간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에 올라온 광주 관련 게시물은 하루 평균 3만 4000여건으로, 지난 6월 하루평균 3300건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광주 관련 SNS 게시물 중 '즐겁다'(2만8711건), '기분 좋다'(2만2631건), '고맙다'(1만1590건) 등 긍정적 단어 사용도 크게 늘었다.

'애정', '멋지다', '아름답다' 등 절대호감을 나타내는 표현도 많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10개의 사

SNS '광주' 언급 10배 이상 늘어
'다시 찾고 싶다' 선수들 바램 붓물
성숙한 시민의식 자긍심 높아

용 사례 9만3120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긍정적 단어가 언급된 횟수는 8만7689회(94.2%)였다고 한다.

이처럼 U대회 기간 광주시민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연대와 나눔정신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다.

내전과 지진, 질병, 가난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겐 어김없이 광주시민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만난 외국인 선수들을 친절함 미소로 맞이했다.

광주 시민의 나눔과 배려 정신은 각종 선수단의 SNS와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으며, "광주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바람도 붓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북한 불참', '태풍' 등 3대 악재를 뚫고 대회기간 동안 보여준 차량 2부제 자율참가,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은 광주 시민 스스로에게도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 같은 광주 U대회의 에너지를 디딤돌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나후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U대회는 끝났지만, 광주의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광주의 미래가 달린 자동차-에너지밸리조성을 비롯한 문화·관광도시 광주를 현실화해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제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끝>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하반기 국정, 노동 등 '4대 개혁' 전력

“국무위원 개인 일정 내려 놔야”
오늘 68일만에 당정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완수가 올해 하반기 국정 의 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분 동안 발언에서 4대 개혁의 의미와 목표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 개혁과제 실현에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강조는 지난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유승민 사태'로 불거진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담이 최대한 뒷받침하는 구조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힘을 합해 올 하반기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 “우리 경제의 제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개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총선 출마설 등으로 개혁과제

추진이 흔들려선 안 되는 만큼 소관 부처의 개혁과제와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력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논란 등 여권 내 분란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15일 이후 68일 만에 재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서비스발전기법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주요 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가 기본 의제로 오른다. 또한, 4대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창도 광주U대회처럼 비용절감 연구”

취임 1주년 맞은 조양호 조직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도 '저비용 고효율'의 광주 U대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오는 3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이 “효율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비용절감을 계속 연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평창대회도 광주유니버시아드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호평을 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대회 외에는 필요가 없는 장비는 구매가 아닌 임대와 협찬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 또 “‘어젠다 2020’에 따라 유연성이 생겨서 일부 메뉴(경기장·시설)를 줄이고 합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경기장 건설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스폰서 및 테스트이벤트 유치, 숙박 문제 해결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위를 피해 개·폐회식을 돔구장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개·폐회식 구상이 안 정해졌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폐회식이 되도록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분산개최 논란과 관련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한 분산개최는 없다고 발표했다”며 “아직도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이다. 오해가 많다는 것에 반성하고, 앞으로 온국민이 납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중 FTA 최대수혜는 소비재...업종은 화학·전자·농식품

코트라 '효과와 활용 방향' 보고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최대 수혜 분야는 소비재, 업종은 화학·전자·농식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21일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방향' 보고서에서 한·중 FTA 효과는 관세 철폐 효과만 두드러지던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와 사뭇 다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중 경제 관계 특성상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진출 여건 개선 ▲국제 분업 활성화에

따른 상생 발전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들 세 분야에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소비재”라고 밝혔다.

또 “업종별로는 관세 철폐 효과에서 화학·기계,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에서는 화학·전기전자·자동차부품·농식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중 간 국제 분업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자·섬유(의류)·농식품 등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활용 전략을 짤 때 업종별 FTA 기대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세 가지 효과가 모두 클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

재에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의 수입 관세가 높아 수출이 어려웠던 소비재 수출을 시도하거나 중간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관, 상호인증, 라벨링 등의 비관세 장벽 분야 개선 사항을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한중 FTA의 성공 여부는 관세·비관세 장벽, 양국 간 분업 등 다양한 기회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코트라는 업종별 한중 FTA 활용 전략을 짜는 동시에 품목별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